

고유황석탄의

원천탈황기술 워크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소장 손영목)는 지난 6월21일 에너지기술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고유황석탄의 원천탈황(물리적탈황)기술에 관한 국제워크숍을 한국계면공학연구소(소장 문광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운영목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에너지자원기술지원센터 김호기소장이 'Clean Coal Technology Program in Korea'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어서 미국의 피츠버그에너지연구소의 Kee H. Rhee박사가 Utility 보일러에서의 이산화황 배출제어와 관련된 여러가지 대안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인도 봄베이타타연구소의 Pradip박사가

석탄분해에 있어서 고압 Roll Mill에 대한 Pilot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주립공대의 D. I. Phillips박사가 현재 일부 상용화가 되고 있고 가장 진보된 물리적 탈황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탑형부선법과 복동전별법을 결합한 새로운 공정에 의한 탈황, 탈화실험 결과 등 8명의 국내외 전문가의 논문이 발표됐다.

쓰레기 매립지반내 건물축조시 보강대책 필요성 밝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쓰레기 매립지는 일반토양에 비하여 침하량이 크고 강도 및 지지력이 작으며 가스 등의 발생에 의하여 기초파일이 부식되거나 쓰레기 지반의 공극이 커지기 때문에 큰 지반침하가 예상된다 할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이재명) 지반연구실 정

하익선임연구원팀에 따르면 이러한 매립지의 경우 연약한 쓰레기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반개량공법의 채용이나 구조물 보강, 가스 및 침출수의 처리 등 유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 신도시 일부지역, 서울의 일부 아파트 및 상가단지, 그리고 지방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일부지역 등이 쓰레기 매립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원의를 위한 워크숍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유계준)는 오는 8월19일~20일 양일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개원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1,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정신보건정책 및 의료보험 현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협회 담당자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또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 수가제', '새로운 보험제도(사보험 등)',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아-1-나의 삭감' 등에 대한 토의도 있을 예정이다. 2

부 개원의의 현안에 대한 토론회는 정신병원을 경영하는 회원과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질문 및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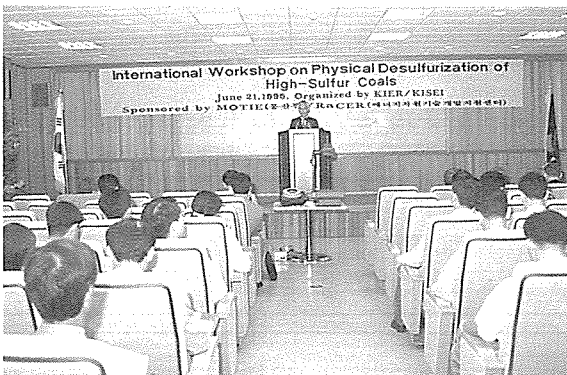
광구학보지역 정밀탐사

한국해양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소장 송원오) 심해저탐사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심해저광물자원 탐사 연구사업이 박찬홍선임연구원, 김기현·이경용박사를 단장으로 한 사업은 3차에 걸쳐 자원연구소, 광업진흥공사 등 총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96일간 수행된다.

우리나라가 UN에 광구를 등록한 후 처음 수행되는 금년도 탐사사업은 하와이 남동해역 클라리온-클리퍼톤지역 15만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정밀탐사와 함께 광구지역에서의 상업생산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료획득을 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퇴적물내 중형저서동물의 분석을 통해 망간단괴 채취후 퇴적물 교란 등으로 야기되는 심해저 환경변화가 저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심해환경변화 예측과



▲고유황석탄의 원천탈황기술워크숍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운영목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환경보전의 기초자료를 획득하게 된다.

1차 탐사팀은 박찬홍선임연구원을 팀장으로 동연구소 15명, 자원연구소 2명, 광업진흥공사 2명 등 총 19명이며 5월28일부터 6월28일까지 32일간 탐사지역에 대한 지구물리 탐사연구를 수행했다.

김기현박사를 팀장으로 동연구소 17명, 자원연구소 3명, 광업진흥공사 2명 등 총 22명이 참여하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32일간 지구물리 조사를 비롯하여 퇴적물, 망간단괴, 해수 채취 및 해저면 영상자료를 획득하여 광물자원탐사와 함께 환경연구를 병행하게 된다.

3차 탐사팀은 이경용박사를 팀장으로 동연구소 8명, 자원연구소 12명, 광업진흥공사 2명 등 총 22명이 8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32일간 자원 탐사활동과 함께 지구물리, 퇴적물, 해수채취 등을 하게 된다.

재료물성 심포지엄

대한금속학회

대한금속학회(회장 최중술)는 오는 9월22일 연세대학교에서 제8회 재료물성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평판 디스플레이재료, 2차전

지, 자성재료, capacitor재료, PZT재료(압전재료, 강유전체재료), Si wafer, DLC재료, 고체전해질재료, GaAs재료, 기타 첨단 기능재료의 응용현황과 전망, 에너지관 또는 절약에 관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10월28일 95년도 정기총회, 추계학술강연 및 발표대회를 홍익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강연 및 발표내용은 금속 및 기타재료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강연시간은 국내연사 30분, 국외연사 40분, 발표시간은 15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 및 소음진동 세미나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 홍성목)는 지난 6월30일 창립 5주년을 맞아 특별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소음진동분과와 일반기계소음진동분과로 나뉘어 우재운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아파트 단지내 건축공사장 유발 소음진동 영향사례' 등 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발전설비의 진동진단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이병준처장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학술강연회 개최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회장 유상신)는 지난 6월21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95년도 고체 및 구조역학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학계의 교수, 대학원생, 산업체와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 산·학·연이 함께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유통과정시의 충격에 의한 가전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적정한 제품강도 및 포장재 설계기술의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낙하시험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기법 및 문제점을 다룬 정완진박사(삼성종합기술원)의 '전자제품 낙하시험의 유한요소해석' 등 6개의 학술논문이 발표됐다.

9월10일은 원자력 안전의 날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의식의 확산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원자력 안전의 날'로, 그리고 이날이 속한 일주일을 안전주간으로 정하여 원자력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원자력 안전의 날'에는 원자력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유공자 포상,

특별강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현안 협의

재미과학협회장, 科總에방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유두영회장과 지용성·민병길전 간사장은 7월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하고 Brain Pool 지원자 추천 등 주요현안에 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총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사업에 해외에서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재미 과학협의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협조 등에 관한 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유두영재미과학협회장은 오는 10월24일 프랑스로용(국립응용과학원)에서 개최 예정인 '95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공동협의회 총회에 재외 과학협간의 Internet Communication 및 통신망 구축에 관한 안전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과학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처, 재정경제원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96년에 개최되는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에 많은 재미과학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97